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중국술의 매력과 저력

영어로 '스피릿'(Spirit)은 정신·영혼·태도 등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다. 이 명사가 가진 뜻밖의 의미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증류주 즉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한다. 위스키·코냑과 브랜디·보드카 등이 모두 스피릿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술들은 단지 마시고 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구 사회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문학의 영역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으로 정의했을 때, 스피릿은 인간의 본질과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매개체였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증류주를 정신·영혼·태도와 같은 의미로 정의했다.

역사와 학문과 술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중국이 여기에서 빠질 턱이 없다. 위스키·브랜디·보드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혹은 그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중국의 스피릿은 '바이주'(白酒)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빼갈, 고풍주, 이과주, 공부가주' 등등 재료와 브랜드를 혼동해서 마구 부르며 마셨던 그 모든 술들의 총칭이자 공식 명칭이 바로 바이주다.

최근 바이주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감지된다. 중국 8대 명주 또는 10대 명주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 술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넓은 중국 대륙에서 오랜 역사를 거머쥐어 만들

어진 고가의 술이니 맛있는 것은 당연할 터. 그렇게 마시면서도 끝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를 찾았다. 쓰촨성의 성도 청두 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남쪽으로 세 시간을 더 달려야 루저우시에 닿는다. 이곳은 도심의 진입에서부터 '중국술의 고향'임을 당당히 밝힌다. 그럴 만한 게, 등록 인구는 루저우시의 인구는 505만 명. 2015년 기준 지역총생산액(GDP)은 1353억 원인(약 23조 원), 이 가운데 주류 산업의 영업 총액은 724억 원으로 지역총생산액의 절반을 넘는다. 이리니 지역 전체가 주류 산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북위 28도에 위치한 루저우는 중국 대륙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장강)이 지난다. 습하고 더운 여름이 길게 이어진다. 대신 겨울은 흐린 날이 많고 습습하다. 이런 환경 탓에 일찍부터 발효 문화가 발달했다.

발효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바이주다. 중국에는 총 4500여 종의 술이 있고 그 가운데 여덟 개를 '중국 8대 명주'로 꼽는데 루저우와 그 인근 지역에서 마오타이·우양에 루저우라오자오 등 세계의 명주가 생산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할 만한 중국술의 고향인 셈이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를 이기기 위해

매운 음식이 발달했다. 말린 고추와 초피 나무 알갱이인 화자오를 듬뿍 넣은 쓰촨 음식은 단지 매운 것을 넘어 혀끝이 마비 될 정도로 강렬하다. 하지만 그 강렬함에 익숙해지면 날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느껴진다. 오죽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만, 쓰촨 사람들은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기한 것은 매워서 따이 비오뚜 쏟아지고 혀가 얼얼해 정신이 혼미할 정도임에도 바이주 한 잔만 마시면 평정심을 되찾고 모든 것이 오히려 개운해진다는 사실이다. 술과 음식은 상호 보완 관계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루저우에서 가장 비싼 명주로 평가받는 '귀자오1573'을 빛는 양조장을 찾았다. 중국에서 '자오'는 술을 빛는 구멍임을 말한다. '귀자오1573'을 빛는 양조장에는 총 40여 개의 자오가 있는데 그 가운데 4개 구멍이는 1573년부터 무려 445년 동안 술을 빛어 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멍이다. 그러나 '귀자오1573'은 브랜드이자 존재 그 자체로 중국술의 역사를 대변한다. 그래서 네 개의 구멍이 앞에는 엄청난 크기의 검은 벽에 중국 국가 유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자오리는 술 구멍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숙성시킨 수수와 쌀겨 그리고 누룩이 전부다. 이렇게 구멍이를 채우고 강에서 퇴적된 고운 황토로 마치 분분을 쌓듯 밀

봉을 하는 것으로 양조 작업은 끝. 그리고 6개월을 기다린 다음 대형 가마솥에 넣고 쪄 내면 맑고 투명하지만 강렬한 바이주가 술술 나온다.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가졌던 의문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소주를 만드는 청주나 위스키를 만드는 맥주 등은 모두 물이 있어야 술이 만들어진다. 심지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와인조차 포도가 가진 수분을 이용한다. 적당량의 알코올을 가진 발효주를 증류해야 비로소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바이주를 발효하는 과정에는 일체의 물이 사용되지 않는다. 마치 두엄 더미를 연상시킨다. 6개월이 지나니 두엄 더미를 깨 보면 바이주에서 나던 꽃향기와 과일 향기가 진동한다.

발효와 부패의 절묘한 경계, 혹은 부패 직전에 얻는 가장 향기로운 순간. 중국술은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썩은 구멍이 속에서 무엇보다 맑고 향기로운 술을 찾아낸 것이다. 루저우시에만 이런 구멍이가 1만여 개가 넘고, 그 가운데 1100여 개는 술을 빛는 지 100년이 넘는다고 한다. 가장 원형에 가깝지만 가장 완벽한 양조법. 중국술의 매력과 저력은 이토록 단순한 원리와 전통을 우직하게 지켜 낸 끈기에 있었다. (맛 컬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민선 6기 마무리...성과는 잇고 과오는 줄이고

민선 지방자치 6기가 이변 주 마무리 된다. 지방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에서는 지금 새 집행부에 대한 업무 인계 작업이 한창이다.

광주시의 민선 6기 4년은 '시민 주권 시대'를 선언하고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호평을 받았다. 윤창현 시장이 술선수범해 특권을 내리놓고, 시민이 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다.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고 5·18 진상 규명을 국정 과제에 반영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았다. 친환경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 에너지 신산업 등 3대 밸리 육성이 그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됐다. 2015하게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 브랜드를 크게 높였다.

전남도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KTX 무안국제공항 경우 확정 등이 대표

성과로 꼽힌다. 2년 연속 '국비 6조 원대, SOC 예산 1조 원 이상 확보'라는 기록도 세웠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술 속의 전남' 만들기로 전남의 가치를 높여 주주 관광지 방문객이 지난해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교통 복지 정책에 반영된 '100원 택시'와 공공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민 정책들도 호응을 얻었다.

아쉬움도 있었다. 광주시의 경우 초기 인사 실패가 행정의 발목을 잡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됐고, 최저기 발골에도 힘을 쏟았다. 친환경 자동차와 문화 콘텐츠, 에너지 신산업 등 3대 밸리 육성이 그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됐다. 2015하게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 브랜드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공과를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7기 단체장들은 거울로 삼아야 한다. 성과는 계승해 행정의 연속성을 살리되 과오는 반면교사로 삼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 혁신위 '위원회 설립'만 남발해서야

이윤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위원회와 기관 설립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7기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위원회나 기관 설립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다.

먼저 '시민불편해소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윤섭 당선인이 지난 26일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도 시민주권분과위원회는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를 혁신 과제로 내놓았다. 또한 '광주시민정책평가단' 구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에는 이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산업전략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5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위원회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의 7개 분과 중 5개 분과에서 무려 7개 위원회와 핫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당선인과 혁신위는 연일 핵심 현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행이 빠지지 않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 설립만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민선7기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인적 구성과 기관 설립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위원회 설립만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의 위원 상당수가 현장 전문가보다는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라도 이를 불식시키고 광주시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김연하 세계로병원 3내과 원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그늘을 찾아 캠핑이나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종 특색 있는 맛난 음식과 멋진 자연 풍경...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남 이야기일뿐, 오히려 몇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걱정인 사람들도 있다. 바로 과민성 장(腸) 증후군 환자들이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배변의 양상 변화나 복통, 복부 불편감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며 배변 후에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기능성 위 장관 질환이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증상들로 인해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나 엑스선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받

과민성 장(腸) 증후군

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약 7~15% 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소화기 질환이며, 사회 생활이 역동적이어야 할 젊은이나 중년에 주로 나타나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

원인으로는 장관의 운동 이상, 내장 감각의 과민성, 중추 신경계의 조절 이상, 장관 감염 및 염증, 정신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이전까지 주로 증상에 맞춰 개선에 초점을 둔 약물 치료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장관의 운동, 감각, 분비 기능 등과 관련된 기전들이 더 자세히 밝혀지면서 각각의 기전에 대해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개발됐다. 또 연구가 한층 심화하는 상태여서 치료의 길도 밝아지고 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이 있을 때 치료에 앞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다른 기질적인 문제를 먼저 배제하는 것이다. 대장암의 가족력, 50세 이후 증상이 시작된 경우,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 빈혈이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 경우,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그 치료로는 크게 식이 요법, 약물 요법, 정신과적 치료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식이 요법을 보면,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의 제한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식 알레르기 등이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음식과의 경험적인 관련성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치료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지 않을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의 음식과 관련증상에 대한 일지 작성 등을 통해 본인의 증상과 관련된 음식을 찾아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변비 증상이 주로 우세한 과민성 장 증후군에선 식이 섬유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설사나 복통이 우세한 과민성 장 증후군에선 일반적으로 카페인, 알코올, 올리브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약물 요법으로는 변비 우세형, 설사나 복통 우세형인 과민성 장 증후군에 따라 각각 부피형성 하제, 삼투성 하제, 진경제, 지사제, 비흡수성 경구용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항우울제 등을 써볼 수 있다.

정신과적 치료에는 인지-행동 요법, 이완 요법, 최면 요법 및 정신 치료가 포함

된다. 여러 비교 연구에서 정신과적 치료는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켰으며, 약물 치료와 비슷한 정도로 증상 혹은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당뇨병 환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절되지 않는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을 상습까지도 관련돼 있다. 약물 치료와 비 약물 치료 등 일반적인 제반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바닥에 깔린 여러 심리 사회적 문제들이 적절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과의 전문적인 심리적 평가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의 의지와 주변 사람의 이해가 중요하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병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친구, 동료, 가족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환자의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기고



정민곤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강렬한 햇볕 아래서 자라난 곡식과 과일들이 알차게 영글어 갈 것이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새싹을 틔워 땅 흘려 키워낸 작물들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린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1991년 이후 4년 주기로 이맘때가 되면 지난 성과를 측정해보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은 인지상정 같다. 마치 대나무가 잠시 성장을 멈추고 단단한 매듭을 지으면서 새 마디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오는 30일 끝나게 되는 제7대 의회도 '행백리자반어구심(行百里者半九十·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절반으로 여긴다)'의 옛말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 후 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 자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노력을 했다. 제228회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개원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69회 임시회까지 42회의 회기에 걸쳐 530일간 회의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725건, 예산·결산안 62건, 동의·승인안 210건 등 모두 127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무엇보다 전체 725건의 조례안 중에서 의원 발의가 337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의회 활동의 보폭도 넓어졌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각종 토론회, 전문가 초청 강연, 의원 연구 모임, 정책 네트워크,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정책적 대안 제시와 시민의 삶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와 공동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를 통해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하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국제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았다.

5·18 진상 규명과 군 공항 이전, 2015 U대회 성공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

을 충실히 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일은 사람이 한다. 사람이 중요하다.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잘 뽑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검증 등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낸다는 취지였다. 지방 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7대 의회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우수 조례 대상, 대한민국의정 대상 등 52회에 걸쳐 의원들의 단체와 개인 수상이 이어져 선진 의회로 평가를 받았다. 다음 달이면 광주시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제7대 의회보다 한 명 더 많은 23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5개 자치구를 대표하는 20명의 지역구 의원과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첫 공식 일정은 7월 9일 진행된다. 제2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의원들은 의회 운영, 행정 자치, 환경 복지, 산업

건설, 교육 문화 등 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지역 의원에게 주어질 할 일이 있다. 자치 단체의 법률이다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확정하고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또한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청원과 진정)을 듣고 집행부에 그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8대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사명과 도시철도 2호선, 군 공항 이전, 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공원 특례 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현안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대를 품고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4년마다 출렁이는 지방의회는 매년 부분 기대 속에 출발한다. 제8대 의회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과감한 개혁과 변화로 광주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無等鼓

"음악도 너무 좋지만 난 왜 연주하는 '모습'에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하면서 행복해지는 게 느껴져 그런 게 아닐까. 나도 괜히 울컥했어." 디토 앙상블 공연이 끝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두 여성의 대화를 듣고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다.

지난 18일 광주문화회관에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모습을 보며 10여 년 전 대전에서 그의 공연을 접했을 때가 떠올랐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쇼스타코비치의 '갯 플

마음 속 연주자

을 받은 지인은 "오울 공연 보고 정말 행복했다" 말했더니 너무 맑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더라"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볼 때면 떠오르는 이가 있다. 젊은 바이올리스트다. 2013년 가을,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곡' 전국연주를 끝내고 쏟아지는 박수 갈채에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2016년, 공연을 하루 앞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급성 심장

지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연주는 이제 동영상이나 음반으로 밖에 만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기억은 클래식 팬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다. 다음달 광주에서는 클래식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세종솔로이스츠(7월 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바이올리스트 김다미&피아니스트 문지영 듀엣(7월5일 금호아트홀), 김봄소리&손정명 듀엣(8월 10일 금호아트홀)이다. 모두 놓치지 야까운 공연이다. 공연장에서 어쩌면 당신도 젊은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춰 이날 안 베푼 연주를 들려준 그에게선 10여 년 전과 똑같은 '진심'이 보였다. 공연 후 사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국문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할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0-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